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4. 4. 2.

한국산업위생협회

한국산업위생협회 협회지(2024-Vol.1 봄호) 발간 안내

2024-Vol. 1 봄호 e-book

한국산업위생협회의 협회지(2024-Vol.1 봄호)/ISSN 2983-368X가 발간되어 안내드립니다.
한국산업위생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소식-KOHA 협회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한국산업위생협회 협회지 2024-Vol.1 봄호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1)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2)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1)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2)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3)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1)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인정
2)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1)지원대상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힐링캠프, 체육활동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2)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1)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2)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정부·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301749

2023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301886

안전보건 우수 연구논문에 도전하세요!

근로환경조사·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 "6월 1일까지 접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박승현, 이하 '연구원')은「제11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대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전보건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유주제의 논문 1편*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6월 1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6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식은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 시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8편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총 약 1,000만 원이 수여될 전망이다. 논문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https://oshri.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현 연구원장은 "올해 논문 경진대회에서도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우수 논문들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고품질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정책수립에도 적극 활용하여 산재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320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 정부와 원청이 함께 합니다!

'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중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 추가 신청접수[3.25.(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3.25.(월)부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24년 4,000여 개소 지원, 3,220억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 ? 설비로부터의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비용의 40%~50%,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애초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1.18.~3.18.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하여 사외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고, 3.25.(월)부터 5.24.(금)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 ☎1644-4555)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라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348

'산업안전 대진단' 통해 소상공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 …
대진단 참여 확대, 안전보건 컨설팅, 재정지원 등 협력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25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에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이행 지원 ▲안전의식 ?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 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소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조성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355

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 2024년 1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368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첫 발간
-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 발생 동향 및 예방 대책 등 600여 건 자료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1일(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에 모아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이다. 중대재해 사이렌 개시 이후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제공해 왔다. 현재 전국에 78개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5만 3천 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안전 공유 대표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그간 사업주·안전관리자·일반 국민들에게 공유된 600여 건의 자료들이 모두 담겼다. 우선, ①중대재해 발생 동향 및 예방 대책을 업종별·사고 유형별로 정리하여 사고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고, ②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도 위험 요인별로 구분하여 적기에 자료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또한, ③생생한 중대재해 사이렌 활용 사례를 함께 담아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해 예방에 활용 가능한 자료들은 적극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④2023년 중대재해 사망사고 일람표를 부록에 포함했다.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고용노동 지방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도 공개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주요 중대재해 사고의 심층적 원인 등을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발간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385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3/15, 충북 괴산군] 천막 위에서 천갈이 작업 중 천막이 찢어지며 떨어짐(6m)
[3/16, 경기 안성시] 화물용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 중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으로 떨어짐
[3/15, 충북 단양군] 지하에 있던 터빈 발전기를 인양하던 중 개구부로 떨어짐(9.5m)
[1/24, 부산 수영구] 미화용품을 지하로 운반하던 중 비상계단에서 넘어짐
[3/12, 인천 서구]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오수배관 설치 중 바닥으로 떨어짐(1.7m)
[3/18, 전북 익산시] 이동대차 수리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이동대차와 기둥 사이에 끼임
[3/14, 충남 천안시] A형 사다리 상부에서 배전 작업 중 뒤로 넘어져 바닥으로 떨어짐(1.2m)
[3/11, 경기 의정부시] 나무 위에서 가지치기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2.5m)
[3/19, 제주 서귀포시]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치기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4.5m)
[3/14, 서울 강서구] 소방배관 용접 작업 중 드라이에어리어로 떨어짐
[3/21, 강원 양구군] 벌목작업 중 인근에서 동료 작업자가 벌목한 나무에 맞음
[3/21, 강원 동해시] 외부 비계 위에서 외벽 페인트 얼룩 제거 중 바닥으로 떨어짐(4m)
[3/24, 울산 울주군] 컨테이너 크레인 수리 작업 중 컨테이너 크레인이 바다로 넘어짐
[3/21, 대구 북구] 지붕 보수 작업 중 지붕재가 파손되며 떨어짐(8.1m)
[3/25, 대구 달서구] 외벽 마감용 석재가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맞음
[3/25, 경남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반응탑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낙하물에 맞음
[3/26, 경기 평택시] 박스 포장 설비 점검 작업 중 박스 포장 설비가 작동하며 끼임
[3/27, 강원 삼척시] 가지치기 작업 중 나무에 맞음
[3/27, 충남 서천군] 철골 연결 작업 중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짐
[3/27, 충남 홍성군] 쇄석기 점검 작업 중 쇄석에 끼임
[3/29, 강원 인제군] 굴착기 주변 암석 제거 작업 중 떨어진 굴착기 버킷에 맞음
[3/28, 충남 공주시] 골재를 운반하던 로더 버킷에 부딪힘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2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공고(2차)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866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일본에서의 직장복귀촉진 제도 - 치료와 일의 양립

최근 오이레터에서는 fit note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일본판 직장복귀촉진 제도**인 **'치료와 일의 양립'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이레터 60호] 영국판 업무적합성 평가 Fit note

이제는 노동력 부족의 시대
한국은 2025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이른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감소하게 되는데, 한국은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95년부터 이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동력 부족**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노동력 부족의 시대, 일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일본은 일할 사람을 늘이고, 출생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고용의 처우개선
2)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
3) 장시간 노동의 개선
4) 유연한 근무방식을 쉽게 적용하기 위한 환경정비
5) 고령자의 취업촉진
6) **'치료와 일의 양립'**

노동력 보존을 위한 치료와 일의 양립
'치료와 일의 양립'은 일본인구 중 1억명이 모두 활약하는 사회를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중 하나입니다.
환자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암'은 낫는 병이므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사업주의 관점에서는 노동력을 확보합니다.
의료의 관점에서는 치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를 강조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70/

예술과 직업건강 탐구: 마루 벗기는 사람들

1. 작품배경 설명

이 그림은 1875년에 **구스타브 카유보트**(Gustave Caillebotte, 1848-94)가 146.5×102cm의 캔버스에 그린 유화로, 그 제목은 '**마루 벗기는 사람들**'입니다. 원제는 불어로 'Les raboteurs de parquet'이고, 영어로는 'The Floor Planers' 또는 'The Floor Scrapers'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구스타브는 이 작품을 1875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하려 하였지만 **저속한 노동계급의 삶을 예술의 주제로 삼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간신히 이듬해인 1876년 두 번째 인상파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공개하였지만, **공개 직후 즉각적인 악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몇몇 화가들이 시도한 사실주의 운동은 노동계급의 삶을 예술의 주제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었던 파리 미술계는 같은 전시회에 출품된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여성 세탁부(Washerwoman)와 함께 이 그림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사진출처: Musee d'Orsay, Paris, France / Bridgeman Images

2. 무릎 부위 신체부담과 반월상 연골파열

위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명 작업자가 대패질, 바닥 긁기, 칼날 갈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세 작업자의 작업 자세는 비슷합니다. **이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건강 위험은 장시간 무릎을 꿇는 것(prolonged kneeling),** 어색한 자세(awkward posture), 반복적인 상지 활동(repetitive upper limb activity)**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활동은 무릎 관절에 높은 생체역학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급성 또는 만성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반월판 연골파열**은 일반적으로 병인에 따라 크게 외상성 또는 비외상성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외상성 반월상연골 병변은 활동적인 젊은 사람들에게 흔한데, 무릎부위의 심각한 외상성 충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반면 비외상성 병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월판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발생하기 때문에 중년 및 노년층에서 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두 가지 상황 모두 가능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장기간 작업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반달연골 파열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단 오르기, 중량물(10kg 이상 혹은 25kg 이상) 들어올리기 및 운반하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과 프로축구 선수, 광부 및 바닥 일꾼(floor layers)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서 반월판 연골파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논문] 반월상연골 병변의 직업적 위험인자: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2021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71/